



[강남진보를 말하다]  
혁신 없는  
강남진보의 한계  
새 시대정신 구현해야  
04



코스피	1967.79 (0.00)	코스닥	610.55 (0.00)
금리	1.17 (0.00)	환율	121.20 (-5.20) (8.30)

日수출규제 속 이번엔 SK이노, LG “특허침해” 제소

## 협업 아쉬운 판에… 배터리 집안싸움

SK이노, 美서 LG에 맞소송  
“공개채용 통한 자발적 이직  
생산방식 달라 유출 불필요”

LG화학 “직접적 사과 필요  
모든 역량 총 동원 할 것”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두고 한·중·일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맞소송에 나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침해 혐의로 LG그룹 두 계열사를 동시에 제소한 것.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8월 30일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현지 법인인 LG화



학 미시간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또,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는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유해 오다 더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공식적, 직접적으로 대화를 요청해 온 적이 없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직접적인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특히 LG화학은 30여년 동안 막대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 축적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전기차 배터리 소송은 지난 4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EC) 및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며 “이들을 통해 LG화학 기술이 다양 유출된 자료도 발견했다. 입사 지원 서류에 LG화학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

로 담겨 있는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개인별 접촉 채용이 아닌 공개채용으로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LG화학 제소에 대해 “불필요한 문제제기이며, LG화학 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해 이직자가 많은 것은 아닌지 짚어보라”고 맞섰다. 자사 배터리 개발기술과 생산방식이 경쟁사인 LG화학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유출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와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두 기업 간 화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대일본 수입이 원활치 않을 것이 전망이 있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제4회 물류&amp;모빌리티 포럼’

## 스마트물류 향한 한발 전진

메트로경제가 오는 9월 26일(목) 서울 을지로 폐럼타워 폐럼홀에서 스마트물류와 모빌리티를 주제로 ‘제4회 물류&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합니다.

메트로경제는 지난 3회까지 물류산업에 초점을 맞춰 포럼을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물류산업과 모빌리티산업의 융·복합 추세에 주목해 포럼 주제를 ‘물류&모빌리티 포럼’으로 확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주요 산업에서 불고 있는 가운데 물류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물류집합시스템의 신뢰도 향상, 자율자동차를 활용한 운송 효율화, 최종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한창입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블록체인·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이 물류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빌리티산업과 물류 산업의 융합 추세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두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와 정책 과제 등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물류산업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트로경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 제 : One more step Smart Logistics  
(스마트물류를 위한 한발 전진)

■일 시 : 2019년 9월 26일(목) 13~17시30분

■장 소 : 서울 종구 을지로5길 폐럼타워 폐럼홀

■주 최 : 메트로경제

■등 록 :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http://www.metroseoul.co.kr))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문 의 : (02)721-9826 또는 [forum@metroseoul.co.kr](mailto:forum@metroseoul.co.kr)

metro<sup>®</sup>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1일 오후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빈방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방문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 泰·미얀마·라오스서 ‘韓-메콩’ 협력 강화

文 대통령, 동남아 순방 돌입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빈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과 미얀마 국빈방문은 2012년 이후 7년만이고, 라오스 국빈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마치면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게 된다. <관련기사 3면>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와 연관이 깊다. 신성장동력 주축인 메콩유역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높여 우리경제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함으로 해석 가능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해 빤라윳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간 실질협력을 협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태국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사회·문화·국방·방산 등 전통적 협력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및 첨단산

업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또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

문 대통령은 3일부터 5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해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및 원민 대통령 등과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 및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미얀마는 인구 5000만 이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천연가스를 비롯한 풍부한 자원이 상당하다. 다만 2011년 민선

정부 출범이래 대외개방을 늦게 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 기회가 많은 나라라는 게 여론 측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5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해 분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통문 총리와의 면담 등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등을 협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메콩강(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 최대 관통국인 라오스로부터 한-메콩 실질 협력 로드맵을 펼칠 예정이기도 하다.

/태국=우승준 기자 dn1114@

## 수출 9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 등 부진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 대외여건 악화 속에 한국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일본 수출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까지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반도체 등 주력품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8월 수출액이 464억달러로 전년 대비 13.6%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12월(-1.2%)을 시작으로 올해 1월(-6.2%), 2월(-11.3%), 3월(-8.4%), 4월(-2.1%), 5월(-9.8%), 6월(-13.8%), 7월(-11.0%)에 이어 8월까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일평균 수출액은 8억1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1% 줄었다. /석대성 기자 bigstar@